

비일관성의 Holland 6각형 프로파일 직업행동 분석

최선희*, 서설화, 송수용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The Analysis of Vocational Behavior in the Inconsistency Profiles using Holland's Hexagonal Model

Seon-Hee Choi*, Seol-Hwa Seo, Soo-Yong Song

Dept. of vocation, Kyu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요약 본 연구는 Holland의 일관성 개념과 6각형 모형에서 나타난 성격유형간의 상대적 거리에서 비일관성을 보이는 유형이 진로경로에서 보이는 독특한 문제해결방법 및 태도, 특징적인 흥미 성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은 한국직업상담협회, 한국자활연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연수를 받은 87명의 대상자 중에서 Holland 6각형 프로파일에서 비일관성이 나타난 6명을 대상으로 면담하여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비일관성 3코드를 지닌 연구대상자들은 4가지 특징-세 가지 이상의 진로 경험, 다양한 흥미 추구, 진로몰입도, 진로정체성 등으로 나타났다. 비일관성의 연구대상자들은 개인이 갖는 Holland 3코드에 의해 직업행동에 영향을 받으며, 사람-환경 적합 이론의 Holland 이론에서 벗어난 직업행동을 보이고, 진로정체성에 대하여 긍정, 양가적, 혼돈 등의 형태를 보였다. 또한 같은 비일관성 유형 내에서도 관습형(C)-탐구형(I)-사회형(S) 3코드와 예술형(A)-진취형(E)-현실형(R) 3코드를 갖고 있는 연구대상자의 진로경로 개척시에 직업행동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Holland 3코드가 갖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직업상담서비스의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a unique method of problem-handling, attitudes, and specific interest propensity in the career path of the type with inconsistency in the relative distance between personality type in Holland's hexagonal model. In-depth interviews and theme analysis with six clients who showed inconsistent personality type were conducted. These six were selected from 87 participants that had received training at the Korea Vocational Counselling Association, Korea Training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From the analysis, the six clients with inconsistent 3 Codes showed four characteristics - more than three career experience, various interest pursuits, career involvement, and career identity. They were affected in their vocational behavior by their own Holland 3 Codes and showed vocational behavior very different from Holland's theory of person-environment fit approach. They showed positive, ambivalent and chaotic types on career identity. Furthermore, Conventional(C)-Investigative(I)-Social(S) 3 Codes type and Artistic(A)-Enterprising(E)-Realistic(R) 3 Codes type in the same inconsistent personality type showed different vocational behaviors in career path development, which relates to the meaning of Holland's 3 Codes.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its provision of various points for improving career counselling.

Keywords : Artistic, Career, Consistency, Conventional, Enterprising, Holland, Investigative, Personality, Realistic, Social, Vocatioanl Counselling Services

1. 서론

인간이 일생동안 직업을 영유하는 유형을 보면, 한 가지 분야에 매진하는 유형이 있지만, 다양한 면에서 두각

을 나타내는 유형도 있다. 역사적 실존 인물 중에서 이러한 현상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직업선택의 기준을 개인의 직업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왔다. 그러나 개인이 앞으로 그 직업을 영위하는데 부딪칠 환경과의 적응

*Corresponding Author : Seon-Hee Choi(Kyunggi Univ.)

Tel: +82-10-6656-3221 email: yueliangch@daum.net

Received October 12, 2017

Accepted November 3, 2017

Revised (1st October 30, 2017, 2nd November 2, 2017)

Published November 30, 2017

에 대한 예언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개인과 환경과의 현상을 설명해주는 이론이 Holland[1]이론의 일관성의 개념이다.

Holland 이론은 사람과 환경과의 적응을 나타내는 이론이다. Holland는 6각형 모형을 제시하면서 성격유형 간의 관계나 성격유형들이 심리적으로 유사한 정도는 성격유형 간의 거리와 반비례한다고 가정한다. 두 가지 성격유형 간의 거리가 짧을수록, 그 성격 유형이 심리적으로 닮은 정도는 더 크다. 예를 들면, 현실적(R) 성격유형과 탐구적(I) 성격유형은 그 특징이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 두 성격유형은 여러 면에서 닮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탐구적(I) 성격유형과 진취적(E) 성격유형은 멀리 떨어져 있다. 따라서 이 두 성격 유형 간의 특징은 매우 다르다. 탐구적(I) 성격유형과 사회적(S) 성격유형은 닮은 정도를 볼 때, 중간 수준으로 닮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면, 한 개인이 갖는 3코드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매우 다른 특징을 나타낼 것이다. 이와 같이 Holland는 6각형 모형에서 거리와 관련하여 일관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일관성은 직업을 선택할 때에 보다 안정적이게끔 한다. 즉, 일관성은 직업전환의 횟수나 변화의 정도가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일관성이 낮은 3코드의 개인은 직업전환의 횟수와 변화가 높음을 가정한다. 또한 개인들은 성격과 환경형태가 유사할수록 사람은 환경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융통성 있게 반응하지만, 성격유형과 일치하지 않는 환경에 대해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Holland의 일관성 개념과 6각형 모형에서 나타난 성격유형간의 상대적 거리에서 비밀관성의 성격유형이 갖는 독특한 문제해결방법 및 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비밀관성의 성격유형의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선택하고 처리하는지 등 특징적인 활동, 기술, 능력을 발휘하고 특별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직업상담서비스의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Hollnad의 일관성 개념

Holland 6각형 모형[1]은 Holland 이론의 성격유형인

RIASEC을 각각 6각형의 한 지점에 위치시켜 각 유형들 간의 관계와 심리적 유사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하학적 모형이다. 즉 6각형 모형의 왼쪽 상단부터 현실적(realistic; R) · 탐구적(investigative; I) · 예술적(artistic; A) · 사회적(social; S) · 진취적(enterprising; E) · 관습적(conventional; C) 등이 시계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어 사람의 성격유형이나 환경유형의 프로파일 패턴을 손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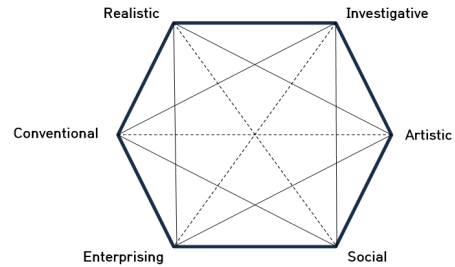


Fig. 1. Holland hexagonal model

Holland[2]는 이러한 6각형 모형의 분석에 바탕이 되는 일관성, 차별성, 일치성, 정체성, 계층성 등 5가지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은 진로에 대한 사람과 환경의 적응에서 갈등요소를 파악하는 틀이 되고 있다.

5가지 개념에서 우선적으로 설명되는 개념이 일관성(consistency)이다. 이 개념은 6각형 모형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유형들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유형들보다 일관성이 더 있다고 가정된다. 국어사전에서는 일관성을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성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탐구적(I)이고 관습적(C)인 활동에 흥미를 가진 현실형(RIC)은 설득적(E)이고 사회적(S)인 활동에 선호를 나타내는 현실형(RES)보다 더 일관성이 크다. 일관성을 조작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Holland 코드 첫 두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첫 두 문자가 육각형에서 바로 인접해 있을 때 일관성이 높게 나타난다(예 : RI 또는 SE). 중간 정도의 일관성은 육각형에서 한 유형 건너서 있는 유형 간에 나타나며(예 : RA 또는 SC), 일관성이 낮은 것은 코드의 첫 두 문자가 육각형에서 두 유형을 건너 서로 마주보고 있는 유형에서 나타난다(예 : RS 또는 AC).

Holland는 사람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는 성격유형의 일관성과 환경형태의 일관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

였다. 이러한 가정은 일관성에 관한 정의로부터 나온 것이다. 즉, 성격유형이 일관된다는 것은 서로 유사한 흥미, 유능감, 가치, 특성, 지각을 보인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사람의 성향을 예측하기란 일관되지 않은 성격유형의 사람보다 쉽다. 그리고 환경형태 또한 보다 통합되고 서로 유사한 요구사항과 보상 행위를 보일수록 일관된 것이고, 이처럼 일관된 환경은 그에 유사한 행동을 더 강요한다. 그러므로 각 환경모형은 주어진 성격유형에 의해 결정되며, 환경은 특정한 문제와 기회를 포함한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특징지어 진다. 예를 들면, 현실적인(R) 환경은 현실적(R) 성격유형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된다. 즉, 현실적인(R) 환경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실적(R) 성격유형과 유사하다. 그리고 관습적인(C) 환경은 관습형(C)의 사람에 의해서 지배된다.

한편, 비일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을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일관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다양한 흥미, 유능감, 가치, 지각능력을 통합하여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다양하고 폭넓은 행동목록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비일관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환경이 주는 영향력은 그리 강력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은 폭넓게 보상을 제공하고 다양한 조건들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관적인 사람과 일관적인 환경의 상호작용 결과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비일관적인 3코드를 보면, RAE, REA, ARE, AER, EAR, ERA, ISC, ICS, SCI, SIC, CIS, CSI 등 12개 유형이다. 12개 비일관성의 유형들은 Holland 이론에서 제시된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유형의 환경을 선호하는 일관성에 의미를 두지 않으며, 다양한 흥미를 나타낸다. 결국 이 유형들은 환경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1].

2.2 선행연구 분석

Holland 이론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성격유형과 환경유형의 일치성에 대한 연구[3-4]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적 성격과 직업의 환경이 일치할수록 직업 만족도와 진로성숙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Holland 육각형 모형의 타당도에 대한 연구[5-7]가 이루어졌으며, 정봉희[8]는 예술형과 관습형의 직업인들의 진로발달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개인들이 자신의 성격 특성과 일치하는 직업생활

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조주연[9]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Holland 직업성격유형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연구에서 직업성격유형이 일치하는 집단이 불일치 집단에 비해 직무 만족이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한편, Holland 성격유형의 특정 유형을 추적한 연구로는 O'Neil, Magoon[10], Tracy[11]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탐구형을 가진 대학생 171명을 표집하고 신입생~4학년, 신입생~3년 전 졸업한 사람 등까지로 표집하고 일관성을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었다. 신입생들이 실시한 일관성은 4~7년까지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 그리고 졸업생의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코드를 나타낸 탐구형의 사람들 중 76%가 탐구적인 분야에서 직업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탐구형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일관적이지 못한 코드를 가진 사람들은 전체 탐구형 중 34%만이 탐구적인 분야에서 직업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 수준의 일관성을 가진 사람들 또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지 3~7년이 지난 사람들의 경우, 탐구형에 맞는 직업을 현재 가지고 있으면서 일관성이 높은 사람들의 비율이 54%에 달하였다. 반면에 낮은 일관성을 보이면서 자신의 유형과 일치하는 탐구형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13%밖에 미치지 못하였다.

Wiley와 Magoon[12]은 사회형(대학 1학년) 211명을 표집하여 일관성의 수준(87 높음, 79 중간, 54 낮음)에 따라 분류하고 지속성(졸업)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그들은 코드의 일관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코드의 일관성이 낮은 학생들보다 지속적인 경향을 보였다.

김병숙·이준일[13]은 우유부단형 내담자의 Holland 3코드와 내담자가 진술한 주제의 Holland 코드와의 일치성, 그리고 우유부단형 내담자가 갖는 각 코드 값의 계속성을 분석하여 우유부단의 원인 중 하나가 다재다능임을 규명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주로 Holland의 이론에서 성격유형과 유형에 따른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가 많았으나, 비일관성의 개인에 대한 직업행동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연구방법

3.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대상은 2017. 5. 25.~9. 22.에 한국직업상담협회, 한국자활연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연수를 받은 87명의 대상자 중에서 직업카드분류150 검사 후, Holland 육각형 프로파일에서 비일관성을 보인 6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Holland 3코드를 보면, CSI, ICS, CIS, AER, ARE, EAR 등 6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6명은 37~50세에 걸쳐 있으며 직업생활에 종사하고 있는 상태로서, 직업훈련운영관리자 1명, 직업재활상담사 1명, 컴퓨터 프로그래머 1명, 여행네트워크 관리자 1명, 사회복지사 2명 등으로 구성되었다(Table 1).

Table 1. Subject of study

Case	Age	Sex	Scho.	Job	code
1	44	F	univ.grad.	Vocational Training Manager	CSI
2	50	M	univ.grad.	Vocational Rehabilitation Counselor	ICS
3	37	M	univ.grad.	Computer Programmer	CIS
4	38	F	univ.grad.	Social Worker	AER
5	42	F	high.grad.	Travel Network Manager	ARE
6	46	F	univ.grad.	Social Worker	EAR

scho.= scholarship / univ. = university / high. = highschool
grad. = graduation

3.2 연구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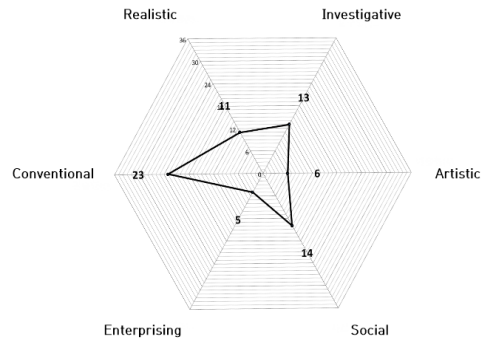
3.2.1 직업카드분류 검사

연구도구는 직업카드분류150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직업카드분류150은 Holland 성격유형론에 근거하여 직업흥미를 탐색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직업에 대한 ‘선호’와 그 ‘선호’를 조직하는 개인의 특별한 이유를 노출시키는 질적 도구이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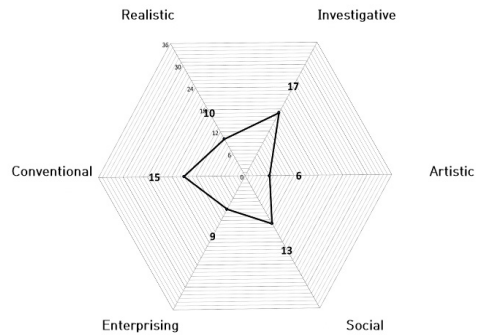
본 연구는 『직업카드분류150』의 지침서[15]에 따라 5단계를 거쳐 직업카드 분류 검사를 실시하였다. 직업카드 분류 활동 시간은 60~90분 소요되었으며, 자격을 갖춘 직업카드심리검사가가 검사를 진행하였다.

직업카드분류150의 Holland 6각형 모형의 프로파일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연구대상자가 “좋아하는 직업”으로 분류된 카드들 중에서 우선으로 선호하는 직업 12가지를 선택하고, 1~12순위까지 순위별 직업명과 Holland 3코드를 기재하게 하였다. Holland 코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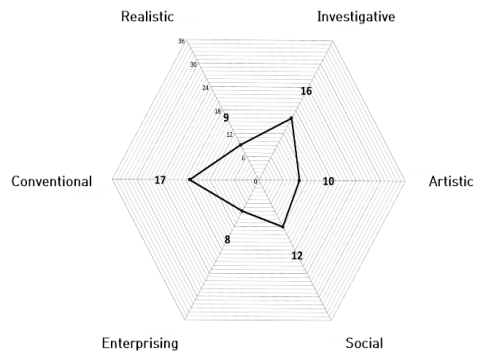
단계로서, 우선순위로 정렬한 12개 직업의 3코드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즉, Holland 코드 첫 자리는 제1코드 가중치 3점, 두 번째 자리는 제2코드 가중치 2점, 세 번째 자리는 제3코드 가중치 1점 등을 부여하였다. 이때에 6개 코드 점수의 총합은 72점이며, 각 코드의 가장 높은 점수는 36점이다. 개인별 Holland 코드는 각 코드가 갖는 가장 높은 점수 순으로 3코드를 확정하였다.



(a) case1 (CSI)



(b) case2 (ICS)



(c) case3 (C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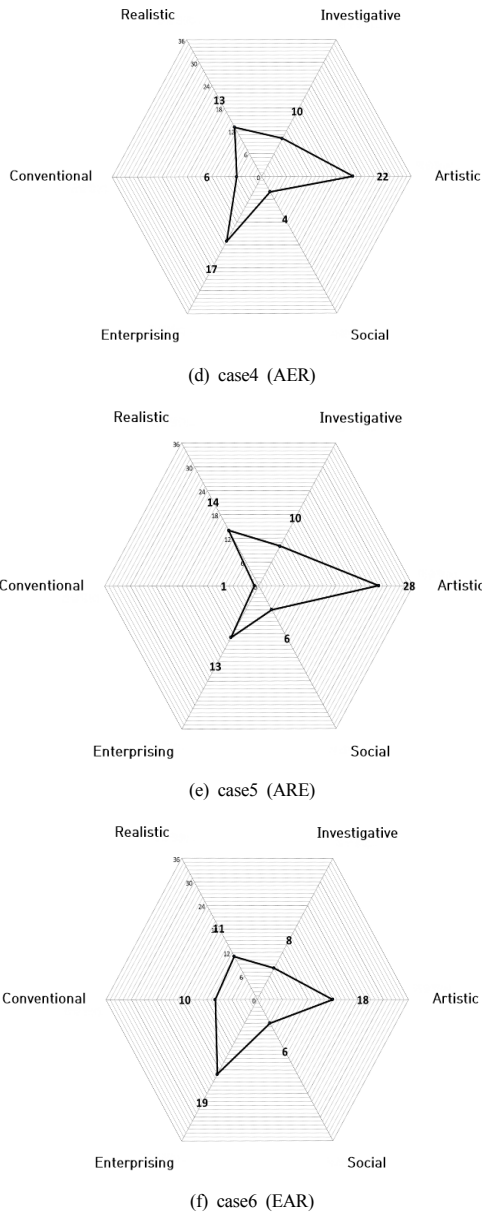


Fig. 2. Six case of Holland's Hexagonal model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연구대상자의 Holland 6각형 모형의 프로파일을 완성하였다(Fig.2).

3.2.2 반구조화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Holland 육각형이 비일관적인 연구대상자의 진로경로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흥미 성향, 문제

해결방법 및 태도, 직업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면접 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Holland 성격유형 및 질적연구 방법과 관련된 문헌을 개관하였으며[1,16-18], 직업카드 분류150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연구대상자의 예측되는 직업행동에 대한 특성들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사전검사(pre-test)는 2017년 8월 두 차례의 사전면접을 실시했으며, 사전검사 후 보완해야 할 질문에 대해서는 직업학 교수 1인의 감수를 받고, 직업학 전문가들과의 분석과 토의를 통해 내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2차 선정하였다. 확정된 반구조화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2. Interview questions of qualitative research study

research problem	1. Are you interested in other various field besides your present work?
sub questions	1-1. What do you do for a living now? 1-2. Are you satisfied with your work? 1-3. Do you have other work to hope to do besides your present work? 1-4. What is that work? 1-5. Do you want to try that work? 1-6. Have you ever tried to do or experience totally different work? 1-7. Have you ever missed other work while you do that work? 1-8. Do you think that you are going to circulate three works continuously?
research problem	2. How do show the characteristics of career path related various interests with inconsistency?
sub questions	2-1. Do you have various interests from when you are young? 2-2. How many works you haven't ever circulated?
research problem	3. What do you think of yourself who doesn't have interest consistence ? (cognition on one's identity)
sub questions	3-1. What do you think of that you want to do more various things than others? 3-2. Why do you think that you have various interests? 3-3. Please analyze yourself.

3.3 면담과정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의 하나인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은 구조화된, 또는 비구조화된 참여자들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끌어내고 이를 분석하는 기술로서, 연구자가 인터뷰 참여자와 이야기하면서 말, 표정, 몸짓 등을

통하여 그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알아내는 방법이다[16]. 심층면담의 강점은 연구대상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데 있다[19].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수집은 2017. 5. 25.~9. 22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Holland 육각형 프로파일에서 비밀관성을 보인 연구대상자 6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의 실시는 연구대상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60~90분 동안 1:1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시 윤리규정에 따라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면담 과정을 구조화하고 연구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면담을 하기 전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진로경험과 흥미,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며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면담 전 기본좋은 질문(feel-good question)으로 시작하여 연구참여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면담하는 동안 연구대상자의 이야기 흐름을 끊지 않으려고 했고, 흐름에 따라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어갔다. 면담하는 동안 녹음과 함께 맥락상 중요한 의미의 진술이나 태도, 표정, 분위기 등 비언어적 표현에 관한 것을 별도로 메모하여 인터뷰 흐름상 추가 질문이 필요할 때 반영하였다.

3.4 자료분석방법

3.4.1 주제분석

Wolcott[20]는 자료를 줄이는 것은 연구자가 자신의 면담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작업으로 수집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한 후 요약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를 근거로 먼저 자료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요약하여 의미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적 코딩을 통해서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개방적 코딩 방법은 자료들을 분석적 귀납방법을 통해 분석하는 과정이다.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사물, 물체, 작용을 범주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묶는 것이다[21].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면담 내용을 반복적으로 청취하며 전사하였다. 6명 연구대상자 면담 내용 전사분량은 A4용지로 73페이지로(1인당 평균 11페이지) 분량으로 정리되었다. 면담자료는 면담을 시작한 2017. 5. 25.부터 2017. 9. 30.까지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전사된 자료들을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읽고 진술된 문장들을 동일한 의미 지닌 문장별로 분리하여 연구 참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의미와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 문장별로 함축되어 있는 연구대상자들의 공통점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 연관성을 찾아내었다. 공통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범주화하면서 핵심 주제를 탐색하였다. 또한 주제 분석을 통해서 관습형(C), 탐구형(I), 사회형(S) 코드를 가진 CSI, ICS, CIS 집단의 공통점과 예술형(A), 진취형(E), 현실형(R) 코드를 가진 AER, ARE, EAR 집단의 공통점, 이 두 집단 특성의 차이점이 나타나 이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업심리 전공교수 1인과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 2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자료의 분석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 분석 결과 도출된 주제를 범주와 하위범주로 나누고 아래와 같이 표로 제시하였다(Table 3).

Table 3. The vocational behavior characteristics of the Inconsistency Profiles

Category	Subcategory
More than three career experiences	
Pursuing a variety of interests	Pioneer various career paths
	Seeking two jobs simultaneously
	Reasons for a variety of interests
High career commitment	High initial career commitment
	Analytical career commitment
Career identity	Positive evaluation
	Ambivalent evaluation
	Identity chaos

4.1 세 가지 이상의 진로 경험

비일관성 유형의 연구대상자들은 세 가지 이상의 전혀 다른 분야의 진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6명 연구대상자의 진로경로와 직업 유지기간, 이직횟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Table 4). 연구대상자들은 이직의 횟수가 최소 3번에서 많게는 15번 이상(case5)으로 나타났으며,

case5의 경우는 2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5가지의 일을 추가로 더 경험하고 있었다. 10년 이상 직업을 유지한 경우(case2, case 6)는 정규직이거나 장기간 고용이 가능한 환경이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대부분 본인의 흥미에 따라 짧게는 3개월에서 1~2년 정도 유지하고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보였다.

또한 이들의 진로를 보면, 연구대상자가 갖고 있는 Holland 3코드와 관련된 진로경로를 개척하였다.

Table 4. Career path and changing jobs of 6 subjects studied

case	code	changing jobs	career path
1	CSI	10	education technology major → secretary(1y) → web sites planning(3y) → on-line education(4-5y) → education training institution(now)
2	ICS	3	economics major → persecution civil service examinatio study(4-5y) → home school materials tele-marketing(1y) → newspaper(1y) → general administrative official in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18y)
3	CIS	3	office automation major → web programmer(2y) → part time job → software programmer(2y)
4	AER	4	education of nursery major → kindergarten teacher(1y) → mathematics instructor(2y) → gemologist(1y 6m) → social worker(10m)
5	ARE	15	liquor company(3m) → material management at manufacturer(4m) → secretary of local government head(4m) → bank window(3y) → pharmacy assistance(3m) → linen shop employee(7m) → cargo company bookkeeping(3m) → cosmetic store bookkeeping(3m) → restaurant owner(1y) → get social worker and nurse's aide's licence → nurse's aide(10m) → health center(6m) → flower shop(1y 6m) → restaurant owner(6m) → insurance operation(1y) → travel network manager(3y) → (two job: day care center cook(6m), credit card sales(3m), chauffeur service(3m), gas-meter reader(3m), chicken restaurant cook(5m))
6	EAR	3	editing designer(3y) → home school materials manager(1y) → social worker(10y)

y = year / m = month

지난 10년간 이력서 상 열 번 정도 직장을 옮겼어요. 비서 일은 1년 정도 했고 그 이후에 웹사이트 기획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교육업계에서 한 10년 정도 일하고 있지요 (case1, CSI)

텔레마케터도 해봤고, 학습지교사도 IMF때 했었죠

지금은 00공단이니까, 일단 기본적인 사무 업무는 하고 장애인 분들 구직 상담하고, 사업체 개발, 구인처 개발, 매칭해서 알선도 하고 있어요. 일 외에 대체의학을 쪽 준비하고 있어요 (case2, ICS)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유치원 교사를 하고 중학생을 가르치는 수학강사, 보석감정사 자격증을 따서 보석 판매도 하고, 지금은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case4, AER)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편집디자인을 한 적이 있어요. 명함을 제작하고 간단한 홍보물 등을 제작했었죠. 그 다음에 학습지 회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했어요. 사무보조였는데 아동이나 중고생 등의 회원을 관리했어요. 그 이후에는 사회복지사로 쪽 일하고 있는 중이네요 (case6, EAR)

4.2 다양한 흥미 추구

4.2.1 다양한 진로경로 개척

Holland 6각형 모형에서 비밀관성 유형을 지닌 6명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다양한 취미활동과 관심분야를 지니고 있었다. 특징적인 것은 일관되지 않은 다양한 관심과 흥미이다.

보드게임 쪽으로 하고 싶긴 해요. 오프라인이긴 한데, 온라인으로 접목하면 온라인으로도 되고요. 게임도 만들고 싶었었고 하고 싶던 일들이 있었는데, 거의 컴퓨터 관련 일이었던 것 같아요. 3D 입체 프린팅도 관심있구요. 선생님이 되고 싶기도 했어요. 자동차정비? 생각해 보니까 그 자격증 땀던 적이 있네요. 오래됐어요. 관광버스 운전하는 거 생각해본 적도 있었고... 새로 나오는 것들 배우고 싶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모바일 프로그램이라던가, 인터넷 관련되서 컴퓨터 이용해서 프로그램 짜서 할 수 있는 것들이요. 보안쪽? 컴퓨터 보안이요. (case3, CIS)

case2의 경우는 경제학을 전공했으나 심리학과 사회학에 관심을 가지고 학술동아리 활동을 했었으며, 대학 졸업 후에는 한동안 법 공부를 하며 취업 준비를 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일을 하면서 대체의학 분야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택시 운전사가 꿈이었었어요. 남들은 대통령, 그랬는데, 저는 택시 운전사가 꿈이었죠. 교직도 몸담고 싶었고, 심리학, 사회학 쪽도 관심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도 학술동아리 같은 거 거기서 활동을 했어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같은 거. 이제 개인적으로 악기 같은 거 다루는 연습도 하고, 사실은... 법 쪽으로 해서... 법 공부를 했었어요. 전공은 경제학인데, 별도로 법 공부를 더 해가지고 그 쪽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몇 번 떨어지다보니깐... 포기를 했죠. 저는 이런 걸 하고 싶더라고요. 대체 의학 같은 거 있잖아요. 병원에서 안되는 것들, 그런걸 전 좀 쪽 준비해오고 있어요. (case2, ICS)

연구대상자들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흥미라던가 취미를 찾아 근무 외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배우러 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case1). 흥미를 느꼈다면 그 행동이 다른 직업준비를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흥미를 충족하기 위한 배움만을 추구하며(case1, case5), 그 종류도 다양하였다.

아침에 영어학원 다니고 밤에는 배우고 싶은 거. 페디큐어라든가 네일케어, 경락, 마사지 등 요리도 배웠고... 배우는 거 매우 좋아해요. 그냥 배운 거 같아요. 왜냐면 그것을 업으로 삼으려고 배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는 그게 재밌었고 해보고 싶어서 배운 거구요. 많이 배웠어요. 대체의학도 배웠구요. 홍채로 건강을 체크하는 것 배웠구요. 그 다음에 명리학도 공부해 사주도 보구요. 비슷한 게 많아요. 잡다한 거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려고 한 2, 3년 전부터 시간될 때 학원도 다니고 책도 보고 했어요. (case1, CSI)

제가 미싱하는 걸 좋아해요. 뭘 만들어 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 20살 때도 미싱학원 가서 이불보 같은 거 만들고요. 음식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아해요. 혼자 자서 나무를 심고 이런 거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 나무, 이 공간, 냄새, 흠냄새, 이 나무 공간. 내가 만드는 대로 뭘가 키울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내 하는 대로 뭘가 가꿀 수가 있는 거? 뭘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그냥 욕심 있잖아요. 배우고 싶은 욕심. 뭘가 하나 자신을 갖고 자기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그게 나중에 가면 써먹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기고 그렇긴 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차선책으로 준비를 해놔야지 이런 경우는 없었던 거 같아요. (case5, ARE)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센터에서 일하는 게 너무 바빠서 업무를 못 내고 있긴 하지만 혼자 그리고 스케치하는 걸 즐기는 편이에요.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해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요즘 일이 많고 바쁘니까 시간이 나질 않네요. 사업경영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배워보기 싶긴 해요. (case6, EAR)

4.2.2 두 가지 이상 동시에 진로 병행

연구대상자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진로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하고 싶은 일에 대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의 색다른 일에 대하여 도전계획을 갖고 있었다. case1(CSI)의 경우 교육훈련 분야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상담 분야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막연한 미래에는 2가지 일을 함께 하는 삶을 꿈꾸고 있었다.

직업을 생각했을 때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교육 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연륜으로 경험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교육서비스를 운영하고 교육을 실제 운영하고 하는 것은 저보다 나이 어린 후배들이 잘 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내가 가진 경력하고 경험으로 조금 나이들어서도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을 때 카운슬링 하거나 컨설팅 하는 업무들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도 분야가 많은데 컨설팅을 하려면 컨설팅도 상담과 같은 뜻인데, 하려면 일단 학사까지고는 너무 지식이 짧고 공부를 하든 안하든 학위는 더 있어야 할 거 같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흘러온거죠. (case1, CSI)

그냥 작업실이나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거나 그냥 똥똥똥똥 할 수 있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도 생계에 아무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컨설팅 등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똥똥똥똥 그 밸런스가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둘 다 하면서 한 쪽으로 함몰되고 싶지는 않고... 한쪽으로 함몰되고 싶지 않다 그런 것이예요. (case1, CSI)

연구대상자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역량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하고 싶은 일을 그리워하는데, 하고 싶은 일은 연구대상자의 Holland 첫 코드에 해당하는 분야의 일이었다. 즉, 예를 들어 case4(AER)의 경우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막연히 예술형(A) 직업인 플로리스트를 해보고 싶어 하며, case6(EAR)의 경우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진취형(E)의 성향을 발휘하는 사업경영을 구상하였다.

제가 원하는 만큼 일을 했을 때 다른 게 보일 거 같아요. 플로리스트는 해보고 싶다 이 정도예요. 진짜 해봐야겠다는 생각 단계는 아니예요. (case4, AER)

현재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지금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지만요. 가게운영, 사업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떡볶이 장사나 분식집 등을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 구상하는 중이에요.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사업적인 수완이 나름대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뭔가 내 사업을 꾸려가고 싶어서 나름대로 시간이 있을 때 알아보는 중이에요. 경영하는 부분에 흥미가 커요. (case6, EAR)

4.2.3 다양한 흥미를 가진 이유

‘본인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흥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연구대상자들은 크게 생각해본 적이 없으며,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거나, 타고난 성향 같지만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였다.

모르겠는데요. 별다른 생각은 안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취미로 한 거라서... 특별히 기간이나 수준이나 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유가 되면 그때 그 때 생각에 따라 했어요. (case1, CSI)

지나놓고 보니 자연스러웠던 거 같아요. 보는 게 억지로 뭘 끌어다가 붙인 건 아닌 거 같아요. 지나놓고 보니 까... (case2, ICS)

잘 모르겠는데요. (case3, CIS)

그건 저의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저의 성격이나 성향인 거 같아요. 사람이 타고난 성향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기질이 그렇듯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한 거 반복되는 거 싫고, 매번 새로운 거 발견하는 거 좋고, 그게 제가 타고난 그거가 아닐까 성향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질려하는 거를 싫어하는구나, 는 몇 년 뒤 그 전부터 훨씬 알긴 알았지만 이게 그 구체적으로 이게 진짜네, 이런 거를 제가 확신을 한 거는 불과 몇 년 안 되는 거 같아요.(case5, ARE)

4.3 높은 진로몰입

연구대상자 6명의 Holland 3코드를 보면, AER, ARE, EAR, CSI, ICS, CIS 등이다. 이 중 AER, ARE, EAR 집단과 CSI, ICS, CIS 집단 간에는 다양한 진로몰입을 추구하는 공통점과 함께 집단 간 차이점도 있었다.

4.3.1 높은 초기 진로몰입

AER, ARE, EAR 집단은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생기면 도전하는 초기 몰입도가 상당히 높으나, 또 다른 새로운 분야를 접하면 이를 수용하고 포기하는 것도 빠르다. 흥미를 느낀 다양한 분야에 순간적인 몰입도가 뛰어나나 그 몰입의 기간이 길지 않았다. 즉, 순간적으로 흥미를 느낀 분야를 본인이 세운 적당한 수준만큼 충족할 정도로 참여한 뒤에 곧바로 다른 관심 분야를 찾으려고 하며, 그 분야는 현재까지 배우거나 몰입한 흥미와 연관성이 없는, 또는 있다고 해도 일관성 없는 흥미 분야를 찾아 새롭게 배워가는 유형을 보였다. case4(AER)의 경우,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목표를 두고 몰입하다가 자신이 생각한 어느 정도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면 다른 대상으로 흥미 시점을 바꾼다. 이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데 개방적인 예술형(A)과 목표지향적인 진취형(E)의 성격 특징이 흥미를 추구하는 유형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또한 case5(ARE)의 경우도 Holland 첫 코드인 예술형(A) 성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형으로서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해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한 것과 다르면 이에 대한 포기도 빠르다.

그냥 그 일을 하면서 최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에 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것처럼 급방 수용하는 거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최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다른 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러고 나면 옮기는 거 같아요. 현재는 사회복지사를 작년 10월에 도전했거든요. 시점이 바뀌면

서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 같아요 뭐 하나 할 때도 행복하다 만족하다, 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해서 그만두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을 이루고 나면 바뀌는 거 같아요. 뭔가 목표가 생겼을 때는 다른 건 생각 안해요. 제가 생각했던 것을 이루고 나면 바뀌는 거 같아요. 뭔가 목표가 생겼을 때는 다른 건 생각 안해요. (case4, AER)

제가 생각했을 때 싫어하는 게 있는데 유치원을 갔을 때 오래된 교사를 봤을 때 유아들처럼 사고나 행동하는 게 비슷해지거든요. 그 아이들 생각을 해야 하고 그 아이들처럼 생각을 공유해야 하는데... 자는 시간 이외에는 그 아이들과 지내는데요. 그 안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일을 할 때도 만족한다 행복하다 그런 건 아니고 빨리 익숙해지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진거요, 익숙해지기까지를 위해서 워크홀릭 스타일이거든요. (case4, AER)

샵마스터로 운영을 하니 밑에 사람들이 하는 일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때 느낀 게 내가 거의 끝까지 올라갔을 때 그 단계까지 올라갔을 때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원하는 만큼 올라갔을 때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월급 루팡이 되는 게 싫었어요. 정체 되면 고인 물은 썩게 되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발전이 없는 거 같은 거요. 힘을 내서 달리고 싶는데 그럴려면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case4, AER)

진짜 좋으면요, 그냥 거기에 모든 약간 다 거는 식의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어떤 새로운 걸 보면 확 몰입하는 편이에요. 그게 정말 나한테 내가 좋다, 생각하면, 왜 옷도 맘에 드는 옷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사고야 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필이 꽃히면. 그게 뭐 끝까지 100%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냥 저질러 보고 보는 타입? 해 나가다가 이게 정말 내 길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런 식이긴 한데, 그게 아닌 이상에는 그냥 해보는, 바로 해보는, 이것 해야지, 하면 바로 지르고 시작을 해보는 타입. 근데, 하다가 이게 아니었네, 그러면 포기도 빨라요. (case5, ARE)

4.3.2 분석적 진로몰입

한편, CSI, ICS, CIS 집단은 다양한 관심과 흥미를 추

구하긴 하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진로경로에 대하여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얻고자 하는 의지가 뛰어나다.

저는 자기 계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아침저녁으로 거의 학원 다니면서 계속 일했거든요. 아침에 영어학원 다니고 밤에는 배우고 싶은 거. 패디큐어라든가 네일케어, 경락, 마사지, 요리도 배웠고.. 배우는 거 매우 좋아해요. (case1, CSI)

일단 제가 필이 꽃히면 막 파는 게 있어요. 필이 꽃혔을 때는, 그 쪽 관련 분야의 책을 사서 읽어요. 의도했던 건 아니고, 어떤 카테고리처럼, 뭘 하다보면, 뭐가 관심이 가지고, 뭔가 어떤 책을 읽다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거기서 제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다보면, 관심이 꽃히면 또 책을 사서 본다던가 자료를 찾아본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또 관련 분야 동영상이나 유튜브를 계속 찾아보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만나려고 백방 알아보고 그래요. 남들은 알아보다 안되면 마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분과 연락하려고, 주변 것들을 활용해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 번 만나서 깊은 이야기도 나눠 보기도 하고요. (case2, ICS)

탐구형은... 일단 제가 필이 꽃히면 막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I가 나온거지, I가 저한테는 일반적인 거는 아니라고 봐요. 필이 꽃혔을 때 I지, 평상시에는 분석하는 거 이런 거 머리 아파서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필이 꽃혔을 때는, 그 쪽 관련 분야의 책을 사서 읽어요. 또 관련 분야 동영상이나 유튜브를 계속 찾아보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만나려고 백방 알아보고 그래요. 남들은 알아보다 안되면 마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분과 연락하려고, 주변 것들을 활용해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 번 만나서 깊은 이야기도 나눠 보기도 하고.. 사실 책 이외에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게 없잖아요. 일단 책이잖아요. 책에서 많은 걸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case2, ICS)

4.4 진로정체성

4.4.1 긍정적 평가

비일관성 유형을 보이는 연구대상자들은 이직이 잦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남들에 비해 새로운 직업이나 흥미 분야를 자주 바꾸는 자신을 주변에서 ‘번덕스럽다’거나, ‘진득하지 못하다’고 하는 평가와 상관없이, 본인은 남보다 가치있게 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자신들은 흥미를 느끼는 것에 바로 도전하는 진취성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자신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미래지향적으로 움직이고, 용기가 있으며,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직업을 결정할 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형태를 보였다.

남들은 지금도 직장에 있으면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나중에 뭘가 해야 되는데, 뭘가 해야 되는데, 여길 나가서 뭘가를 해야 될 것인가가 막연한데, 저는 그게 구체화되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적네트워크도 만들어가고, 자료도 관련 책도 쪽 수집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늘 거기서 관심을 떼지는 않았죠 (case2, ICS)

저를 생각했을 때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도전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에서 자유로운 거 같아요. 두렵거나 걱정되는 건 없어요. (case4, AER)

주변의 반응은 걱정하는 반응을 보여요. 매번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진 않아요. 주변에서 보석 감정사한다고 했을 때 미쳤다는 반응이었어요. 2년 반에 할 만큼 하니 그때에는 친구들이 대단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주변에서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것을 대단하게 봤어요. 제 모습을 보면서 그 뒤로 제가 다른 걸 한다고 했을 때 잘할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case4, AER)

뭘가 일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의 말을 안 듣고 제가 생각하고 결론내리는 걸 하게 돼요. 그게 후회는 없어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는 만족해요.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제 생각까지 이루었고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하게 됐구요. 자존감이 떨어질 만큼의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인 거 같아요. 뭐든지 하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case4, AER)

못한다고 안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못해도 해보려고 시도하는 스타일이예요. 안하겠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네요. (case6, EAR)

4.4.2 양가적 평가

본인에 대해 남들보다 더 도전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과 적극성을 갖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자신의 진로 경로와 맞은 이직에 대한 부정적인 심상을 동시에 표현하였다.

이미 제 경력은 관리를 잘 못해 꼬인 경력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교육서비스 쪽, 컨설팅 하는 업무 이런 업무들로 지금 잘 가고 있어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case1, CSI)

제가 남들이 볼 때는요. “왜 한 가지 일을 진득하게 못해” 라고 볼지도 모르지만, 전 제가 하는 게 남들보다 가만히 시도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용기도 있구.

제가 그 전에는 철도 없고 생각도 없었던 거 같아요. 이상적으로만 지금도 남들이 보면 너무 이상적이야, 너무 감상적이야 이런 얘길 듣긴 하는데 그걸 구체화 시켜서 이렇게 생각한 거는 불과 2, 3년 전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저의 지금 42살이지만 22살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야 될 걸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좀 뭘가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거 같고. 그렇게 그전에는 없었던 거 같아요. (case5, ARE)

4.4.3 정체성 혼돈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분야에 관심있는 직업이 있어도 자신과 맞는지 자신이 없어 매력을 느껴도 시도를 포기하는 답변도 있었다. 이는 외적으로는 다양한 관심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과 달리, 어떤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들어 진로정체성을 뚜렷하게 형성하는 어떤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내적 혼돈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생님은 어릴 때 애들이 대통령 되고 싶다는 그런 꿈 중의 하나였어요. 잘 안맞. 됐... 잘 모르겠어요. 관심은

많은데...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에, 그 사람들이 알아가고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거에.. 매력을 느끼는 건데.... 시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하고 싶은게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막상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서 했었는데, 좋아했던 일이 막상 해보니까 나랑 좀 안맞는 부분들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case3, CIS)

4.5 진로경로 개척시 집단별 행동 특징

4.5.1 탐구형(I), 사회형(S), 관습형(C) 3코드의 직업행동 특징

탐구형(I), 사회형(S), 관습형(C) 3코드를 가진 연구대상자 3명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흥미를 느끼는 직업이나 목표한 직업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갖추고 있는 진로 자원을 근거로 하거나 이와 연계하여 직업을 탐색하고 이동하고 있었다. 이 유형들은 전혀 다른 분야의 진로를 구상하게 되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 진로경로를 준비하였다. 이는 탐구형(I), 사회형(S), 관습형(C) 각 코드의 특징에서 잘 나타난다. 탐구심이 많고 분석적이며 지적호기심이 많은 탐구형(I)의 성격, 사람들과 관련된 일을 좋아하고 협조적인 사회형(S) 성격, 체계성과 규칙, 질서를 선호하고 정확성, 꼼꼼함, 책임, 신중함, 안정성을 추구하는 관습형(C) 성격 [16]이 진로를 선택하고 이동하는 유형을 그대로 노정하였다.

case1(CSI)의 경우, 이직할 때도 나름 전공이나 했던 일, 공부와 연계된 일을 찾으려고 하며, 하고 싶지는 않아도 현실적으로 자신이 갖추고 있는 진로 자원을 활용해서 선택하였다. 실제 이직하려고 할 때는 많은 고민과 생각 후에 행동하였으며, 현실적인 여건이 확실해지기 전까지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남들이 보기엔 잦은 이직으로 보이지만 본인 나름대로 본인의 꿈과 전공, 일한 경력 등을 연계하여 심화, 확장시켜가는 단계로 보고 있다.

부모님은 사범대학을 가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크게 교사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PD가 되고 싶었던데요. 교육공학을 전공한 선배들 중에 교육방송에 취직한 선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절충안이 되겠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공학을 선택했지요. 그런데 결국 PD

가 되지는 못했지요. 졸업하고 PD 시험을 봤는데 계속 낙방을 해서... 그때는 영어 시험이 중요한 척도였거든요. 그래서 영어 배우러 외국에 가서 1년 정도 있다 왔어요. 영어는 어느 정도 성적을 올렸는데 원하는 시험에 되지는 않아서 영어를 배우고 왔는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놀 수는 없으니까 배운 영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다보니 당장에 찾게 된 직업이 외국인 비서였던 거죠 (case1, CSI)

생각은 많은데요. 그게 확실해질 때까지는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해요. 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찾아볼 수 있을 때까지는 찾아봐요. 그렇지 않았으면 직장을 열 번까지 옮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교육 많이 해봤으니까, 교육에 있어 방법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으니까 이제 오프라인 교육도 알아야겠다. 그럼 오프라인 교육 쪽으로 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직장을 옮긴 거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경력이라고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를 한다고 관리를 하는 거죠 (case1, CSI)

case2(ICS)의 경우, 전공과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만 나름 관심 분야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진로 자원을 준비하고 그것과 연계하여 직업을 찾아나가는 형태를 보였다.

사실 근데 지금 일자리는 사회복지과를 나와서 이런 연계선상에서 있었던 자리는 아니고, 그냥 일반 행정직 모집한걸 보고 왔던 거구요. 사실 아까 같이 심리쪽, 사회쪽 관심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상담쪽 상담 자원봉사도 했었어요. 뭐 그런 자원봉사 하는 도중에 뭔가 이 쪽으로 지원을 했고, 지원을 해보니 내담자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직장 잡기 이전 활동들과 맞물리면서 도움이 됐겠죠.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도움이 됐죠. 사실은. (case2, ICS)

저는 이런 걸 하고 싶더라고요. 대체 의학 같은 거 있잖아요. 병원에서 안되는 것들, 그런걸 전 좀 쪽 준비해오고 있어요. 도전해서 이미 10년 지났어요.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관련 분야 책이나, 사람 몸에 대한 걸 알아야 하잖아요. 계속 그런 분야 책을 사고 사람도 만나고, 치료도 계속 해줘보고, 임상을 많이 해봤지요.

그걸 하면서 나중에 이걸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러니까 연속성을 띠게 된 거죠. 지금도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 쪽 관련 일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죠 (case2, ICS)

case3(CIS)의 경우, 관습형(C)과 탐구형(I) 코드에 맞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일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관심 분야가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내에서 도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사회형(S) 분야의 교사에 관심은 있으나 내재된 흥미를 실현시키기보다는 잠재하는 형태로 간직하고 있었다. 관심은 있어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많고, 현실적인 여건이나 자격이 되면 해보지만 본인의 자격이 현실적으로 안맞다고 생각하면 매력을 느껴도 시도하지는 않아 두드러지게 일관성 없는 분야로 직업을 바꾸는데 주저하였다.

컴퓨터쪽 일을 계속 했는데, 그 내부적으로 바뀌거든요. 홈페이지 만들었다가, 게임 만들었다가, 포스 만들었다가, 그 결과물이 계속 바뀌는 거죠 (case3, CIS)

한 번 해보게 되면 하는데, 안해본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망설임?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내재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 남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데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공부하고 배우는 게 좋아서 그랬던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해봤는데, 가끔 한번씩 떠오르는 거... 남들을 가르친다는 게 (내 자신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맞는 걸 아니까, 안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에, 그 사람들이 알아가고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거에... 매력을 느끼는 건데.... 시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저런 거 시도해보기에는 나이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case3, CIS)

저는 맞는 것 찾으면 그 쪽으로 쭉 할 거 같아요. 접목은 시키겠는데, 접목시켜서 하면 괜찮은데...(case3, CIS)

4.5.2 예술형(A), 진취형(E), 현실형(R) 3코드의 직업행동 특징

예술형(A), 진취형(E), 현실형(R)의 3코드를 가진 연구대상자 3명은 본인이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분야의 일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그 능력과 자격을 갖추 개척하

면서 진로를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흥미가 생기면 진로자원을 만들어가면서라도 새로운 진로 경로를 개척한다. 남들이 보기엔 현재 하고 있는 일과 흥미 사이의 연관성이 없는 선택으로 보이기도 하고, 색다른 분야의 잦은 이직에 대해 한 분야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쉽게 바꾸거나 포기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자신의 다양한 흥미를 충족시키는 일관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단지 흥미를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옮겨 알아보고 배워가며 실제 이직에 성공하면서 이런 자신이 남들보다 능력이 많고 도전적이며 용기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case4(AER)의 경우, 첫 코드가 예술형(A)이면서 두 번째 코드가 진취형(E)인데, 다른 연구대상자들에 비해 목표지향적인 성향이 강했다. case4(AER)의 진로경로를 살펴보면, 이전 경력을 살리거나 연계한 직업을 찾는 형태가 아닌, 흥미가 생기면 도전해서 현재 하는 일과 상관 없이 새롭게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척하면서 이직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롭게 찾은 직업에서 본인이 생각한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흥미를 잃고 또 다른 흥미 거리를 찾아 이직을 준비하려고 한다. 이렇게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고 개척하는데 있어 두려움이 없으며 그런 결정을 할 때 남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다.

뭔가를 하나 하게 되면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걸 생각하진 않아요. 그 일을 하면서 빨리 익혔으면 좋겠고, 빨리 이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남이 잘한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될 거 같다, 라는 만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case4, AER)

그냥 그 일을 하면서 최고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에 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것처럼 금방 수용하는 거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최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다른 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러고 나면 옮기는 거 같아요. 현재는 사회복지사를 작년 10월에 도전했거든요. (case4, AER)

저를 생각했을 때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도전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에서 자유로운 거 같아요. 두렵거나 걱

정되는 건 없어요. (case4, AER)

뭔가 일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의 말을 안 듣고 제가 생각하고 결론내리는 걸 하게 돼요. 그게 후회는 없어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는 만족해요. (case4, AER)

case5(ARE)의 경우, 예술형(A)을 첫 코드로 가지면 서도 28점으로 다른 연구대상자들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일을 접하면 순간 몰입도는 뛰어나나 생각과 다르면 포기도 빠르며, 그렇게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는 것 또한 본인의 주체적인 결정이라 생각한다.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지만 하다 보면 계속 하고 싶다가나 뭔가 재미가 있지 않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하다 내 일이 아니다, 라는 느낌이 오면, 그러면 전 바로 관두는 편이에요. 오래 못 참는 편이에요. 그냥 어느 기간만 채우면 말하고, 그만뒀야겠다는 생각을 바로 하는 편이에요. 실행에 옮기는 편이에요. (case5, ARE)

이 일은 내가 아니어도, 그리고 내가 할 일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둘 때도 돈은 만테에서 또 벌면 되지. 근데 이거 갖고 내가 즐겁거나 이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기 이런 느낌이란 단어는 안 맞고. (case5, ARE)

이 일만 하고 싶고 이 일로 뭔가를 창출해내고 싶고 이 일로 가치 있게 살고 싶고, 모든 게 이 여행일을 통해서. 여행일 안에서 직업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이걸 했는데 이 부분에서 더 할 일이 있잖아요. (case5, ARE)

여행일을 해서 그 진짜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게 제가 갖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행일을 안 한다는 건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죽지 않는 한, 안 할 일은 없을 거 같아요. (case5, ARE)

이게 자리 잡힐 동안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치킨 집이나 저번에 카드 일 잠깐 했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고, 뭔가 해야 하는데 누군가 추천을 해서 해 봤는데 역시나 나한테 안맞아. 그렇게, 카드 일은 3개월, 대리운전 3개월, 어린이집에서 6개월 밥해준 거랑, 도시가스 검침 그것도 한 3, 4개월은 했던 거 같은데요. (case5, ARE)

case6(EAR)의 경우, 진취형(E)을 첫 코드로, 예술형(A)을 두 번째 코드로 갖고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와 도전을 즐기며, 사람과 관련되어 사업 경영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일이 전혀 다른 분야의 직업을 시도해본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편집디자이너를 한 적이 있어요. 명함을 제작하고 간단한 홍보물 등을 제작했었죠. 그 다음에 학습지 회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했어요. 사무보조였는데 아동이나 중고생 등의 회원을 관리했어요.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사회복지사로 쪽 일하고 있는 중이네요. (case6, EAR)

못한다고 안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못해도 해보려고 시도하는 스타일이에요. 스스로가 좀 더 적극적이고 다 같이 못해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case6, EAR)

새로운 것을 하는 걸 좋아하죠. 요즘엔 뭐랄까. 지식적으로 전문적이 되기보다는 경영하는 부분에 흥미가 커요. 경영이라는 게 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사람들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는 중이예요. (case6, EAR)

5. 결론 및 제언

5.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Holland 6각형 모형에서 나타난 성격유형 간의 상대적 거리에서 비일관성의 성격유형이 진로경로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문제해결방법 및 태도, 특징적인 흥미 성향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직업카드분류150 검사를 실시하고 비일관성의 연구대상자 6명에 대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대한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갖는다.

첫째, Holland 6각형 모형에서 비일관성 유형을 지닌 연구대상자들의 코드는 관습형(C)-탐구형(I)-사회형(S) 코드(CSI, ICS, CIS)와 예술형(A)-진취형(E)-현실형(R) 코드(AER, ARE, EAR) 등 6명이다. 이들은 세 가지 이상의 진로경로를 개척하였고, 진로경로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다른 진로경로는 이들이 갖는 Holland 3코드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갖는 Holland 3코드는 개인의 직업행동의 특징을 나타낸다.

둘째, 비일관성의 연구대상자들은 다양한 진로를 개척하고 2가지 분야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진로는 그들의 Holland 3코드와 관련이 있었다. 반면, 이들은 다양한 진로에 관심이 많으나 정작 이와 관련된 직업행동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했다. 비일관성의 개인들은 다른 개인과 다른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셋째, 비일관성의 유형은 진로몰입이 매우 높았다. 비일관성의 개인들은 다양한 진로를 추구하면서 일관되게 높은 진로몰입을 보였다. 이들은 진로경로를 이동하고자 하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대상자들의 비일관성에서 오는 진로정체성은 긍정적이거나,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갖거나, 진로정체성의 혼돈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비일관성을 나타내는 흥미유형의 개인에 대하여 비일관성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을 평가하여 이를 수용하는 과정이 직업상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진로경로개척에 따른 직업행동을 보면, CSI, ICS, CIS 집단과 AER, ARE, EAR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Holland 3코드와 관련이 있다. 즉, CSI, ICS, CIS 집단의 진로개척을 하는 과정을 보면, 본인이 갖추고 있는 진로 자원을 근거로 하거나 이와 연계하여 직업을 탐색하고 이동했으며, 오래 구상하고 장기 목표를 포함한 계획을 세워 진로경로를 준비한다. 그러나 ARE, AER, EAR 집단은 자신의 다양한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며, 진로 자원을 만들어가면서라도 새로운 진로 경로를 개척한다. 그러나 목표지향적인 개척활동을 하더라도 아니라고 판단되면 신속히 포기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집단 간 차이는 이들이 갖고 있는 Holland 3코드의 특징과 연관이 높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개인이 갖는 Holland 3코드는 개인의 직업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대상자 6명은 비일관성을 갖는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직업행동은 그들의 Holland 3코드와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비일관성의 개인들의 직업행동은 Holland 3개의 코드 조합이 갖는 의미의 방향성과 같다.

둘째, 비일관성의 개인들은 사람-환경 적합 이론의 Holland 이론에서 벗어난 직업행동을 보인다. 이는 Holland가 비일관성의 개인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보고(1997)와 일치하는 것으로써 일환경에서는 다른 개인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셋째, 비일관성의 개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3코드에 따라 집단적 특성을 갖는다. CSI, ICS, CIS 집단은 전혀 다른 분야로의 진로개척시 정보를 분석하여 구상하고 장기 목표를 포함한 계획을 세워 진로경로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AER, ARE, EAR 집단은 진로경로 개척에 목표를 갖고 즉시 행동하며, 목표지향적이나 아니라고 판단되면 신속히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비일관성을 나타내는 개인들은 진로정체성에 대하여 긍정, 양가적, 혼돈 등의 형태를 보였다. 비일관성의 개인들은 자신의 다양한 진로경로를 경험하거나 개척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였고, 진로정체성도 긍정, 부정, 혼돈 등을 경험한다.

5.2 제언

본 연구의 결론과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한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대부분의 직업상담은 검사를 통해 Holland 코드 판정을 한 뒤 이에 적합한 직업을 안내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Holland가 주장하는 5가지 개념에 대한 적용을 시도하지 못하였고, 특히 5가지 개념 중 계층성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가 기폭제가 되어 Holland의 5가지 개념과 계층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비일관성 개인의 진로경로와 직업행동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많은 임상자료가 축적되어 다양한 흥미로 인해 일관되지 못한 진로경로 추구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내담자에 대한 심층적인 직업상담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J. L. Holland, Making vocational choices :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y and work environments(3rd ed.),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7.
- [2] J. L. Holland, Making Vocational Choices(2nd ed.),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2.
- [3] L. V. Gordon, The measurement of interpersonal values, Science Research Associates, 1975.
- [4] R. Sweet, Work values and Holland typologies - Some side excursions Research Workshop,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1982.
- [5] M. H. Seo, "Evaluating the Cross-Cultural Validity of Holland's Theory in Korea", Ewha Women's University, MA. Thesis, 2001.
- [6] J. T. Kim, M. J. Kim, H. S. Sim, "A Study of Korean Standardization of Strong Interest Inventor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6, no. 3 pp. 383-405, 2004.
- [7] H. J. Kim, "Applicability of Holland's Vocational Interest Model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8, no. 2 pp. 603-619, 2007. DOI: <https://doi.org/10.15703/kjc.8.2.200706.603>
- [8] B. H. Jung, C. G. Ahn, "Career Development of Adults with Artistic and Conventional Occupa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4, no. 1 pp. 1-30, 2004.
- [9] C. Y. Cho, "Relationship between Childcare Teacher's Vocational Personality Type and Their Job Satisfaction by Holland Aptitude Exploration Inventor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M. A. Thesis, 2010.
- [10] J. M. O'Neil, T. M. Magoon, "The predictive power of Holland's investigative personality type and consistency levels using the Self-Directed 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10, pp. 39-46, 1977. DOI: [http://dx.doi.org/10.1016/0001-8791\(77\)90040-9](http://dx.doi.org/10.1016/0001-8791(77)90040-9)
- [11] J. M. O'Neil, T. M. Magoon, T. J. Tracey, "Status of Holland's investigative personality types and their consistency levels seven years la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25, pp. 530-535, 1978.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25.6.530>
- [12] M. O. Wiley, T. M. Magoon, "Holland high-point social types: Is consistency related to persistence and achiev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0, pp. 14-21, 1982. DOI: [http://dx.doi.org/10.1016/0001-8791\(82\)90059-8](http://dx.doi.org/10.1016/0001-8791(82)90059-8)
- [13] B. S. Kim, J. I. Lee, "The Case Study of consistency and calculus using Holland's Hexagonal model on the career indecisive cli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20 pp. 828-837,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2.828>
- [14] S. J. Kim, "The Analysis of Career Adaptability by Cultural Self - Construal, Preference Types, Work Value Subtype", Department of Vocation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Ph.D, Thesis, pp. 10-12, 2012.
- [15] B. S. Kim, Job cards for the youth and the general public category guidelines(2nd. Ed.), Korea Vocational Counseling Association, 2011.
- [16] S. N. Cho, H. J. Lee, Y. J. Joo, N. Y. Kim, *Qualitative Research Design & Practice*, Hakjisa, 2011.
- [17] U. Flick,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Hanwool, 2009.
- [18] J.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eve Approaches*(2nd ed.), Hakjisa, 2010.
- [19] S. O. Han, "A analysis on career adaptability and the recovery processes of career capital for career capital-damaged experiencers", Kyonggi University, Ph. D, Thesis, pp. 40, 2016.
- [20] H. F. Wolcott,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CA: Sage, 1994.
- [21] Y. C. Kim. *Nitride Research Methodology*, Seoul : akademi peuleso, 2010.
- [22] J. H.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Work Values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Holland's Vocational Personality Type", Jeju National University, Ph. D, Thesis, pp. 26~29, 2017.

최 선 희(Seon-Hee Choi)

[정회원]



- 2005년 6월 : 중국 산둥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중어학 석사)
- 2014년 8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08년 10월 ~ 2016년 7월 : 성균관대학교 학사지도 책임멘토

<관심분야>

직업, 진로, 직업카드, 직업심리, 홀랜드

서 설 화(Seol-Hwa Seo)

[정회원]



- 2011년 2월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직업학과(직업학 석사)
- 2014년 8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직업, 진로, 취업, 대학생, 청년인턴

송 수 용(Soo-Yong Song)

[정회원]



- 2005년 8월 :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광고홍보학과(인문학 석사)
- 2013년 2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0년 3월 ~ 2012년 2월 :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2008년 2월 ~ 현재 : 한국인재인증센터 대표

<관심분야>

직업상담, 진로교육